

임화정연 (작자 미상)

"임 처사가 비록 맑다 하나 어찌 대례를 이같이 박하게 하겠는가. 반드시 가벼이 여김이오. 조카딸의 아름다움으로써 어찌 천금 빙례를 아끼며 형의 위세로써 또 어찌 만금 빙례를 받지 못하겠소."

진담의 냉소 — 임씨 집안이 보낸 채례(예물)가 적다며 혼사를 '값'으로 재는 태도. 예물을 '맑음'으로 기뻐한 정현과 정반대 반응.

33번 직결: '옥패 한 쌍'은 정현(기뻐함)·진명(천금 대신)·진담(박하다)의 상반된 반응을 유발해 혼례를 보는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소재.

"혼인의 빙례는 다소를 의논하지 않네. 성인이 예를 지음에 천금으로 예한다 함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으니 그대는 어찌 녹록한 말을 하는가."

정현의 반박 —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의 본질을 따지는 인물. 뒤에서 임규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알아보는 식견과 같은 결.

대화만으로 인물의 가치관을 대비시키는 국문 장편소설의 전형적 서술 방식.

"임가 빙례가 비록 간략하나 옥패 한 쌍이 기이한 보배입니다. 천금을 가히 대신할 것이니 (···) 마땅히 옥벼루로 답례해 쌍옥이 완전하고 인연이 빛남을 표시하지요."

진명의 제안 — 옥패에 옥벼루로 답례해 '쌍옥'을 완성하자는 것. 목적은 두 사람의 인연이 빛나게 하는 데 있다.

34번 ① 함정: 이 장면을 '악인 가문이 주인공 가문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 우위를 점하려 한다'로 읽으면 오독. 진명의 말은 경쟁이 아니라 인연을 기리는 의도임을 본문에서 확인할 것.

"진 형은 미려한 선비요 임 형은 엄숙한 군자라. 그 얼굴은 진 형만 같지 못합니다."

정연경의 답 — 외모는 진상문이 낫다고 인정하되 임규를 '엄숙한 군자'로 규정. 모친이 실망할 것을 미리 헤아려 말을 고른 총명한 인물.

34번 ② 및 32번 ① 근거: 외양에 가려진 내면적 가치를 알아보는 '식견을 갖춘 인물'의 실증 장면.

얇은 코와 검은 빛이며 넓은 턱이 조금도 아리따운 신랑이 아니요 (···) 장대한 모양이 극히 추했다. 범상한 무리가 어찌 영웅을 알겠는가.

'범상한 무리가 어찌 영웅을 알겠는가'는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끼어들어 논평하는 편집자적 논평(서술자 개입). 앞의 '부인과 정현이 그 간교함을 어찌 알겠는가'도 같은 장치.

31번 정답 근거(④): 서술자 개입을 통한 주관적 판단 제시. 동시에 34번 ④의 '못난 외모 + 영웅적 자질'이라는 새 주인공 유형의 근거.

'정 공이 저런 추한 자를 구해 얻으니 반드시 눈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정 소저가 옥연시를 사통해 규방을 더럽게 하니 딸의 허물을 감추고자 임가에 정혼함이로다.'

결으로는 임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던 진상문의 속마음. 표리부동이 그대로 노출된다.

34번 ③ 근거: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해 본심·됨됨이를 드러내는 서술. 32번 ②(왕래하지 못한 이유를 병으로 돌려댐)와도 연결.

"모든 노선생이 계시고 또 부친이 계시니 어찌 방자히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까?"

임규가 진명이 권한 술을 완곡히 사양하는 말. 어른들 앞에서의 삼가는 태도.

32번 정답 근거(⑤): 이는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말. 선지의 '받기 위해 허락을 구하였다'는 방향이 뒤집힌 함정.

작품 정리

갈래	고전소설(국문 장편 가문소설), 혼사 장애 화소
성격	사실적, 세태적, 교훈적
작가	작자 미상
시점/화자	전지적 작가 시점(서술자 개입·편집자적 논평 빈번)
주제	외양에 가려진 내면적 가치의 중요성과, 혼사를 둘러싼 갈등

특징

- 뛰어난 외모가 곧 덕성이라는 기존 전형을 깨고, 못난 외모에 덕성과 능력을 갖춘 주인공(임규)을 내세움
- 서술자가 개입해 '어찌 ~ 알겠는가' 식으로 상황을 직접 논평함
-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해 본심과 됴됨이를 드러냄
- 예물(옥패·옥벼루)을 두고 갈리는 반응으로 인물들의 가치관을 대비시킴

등장인물

- 임규: 외모는 불품없으나 재능과 덕성을 갖춘 인물. 정연양의 정혼자
- 정현: 정연양·정연경의 부친. 임규의 내면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음

- 정현의 부인: 임규의 용모를 의심해 직접 보고자 번민함
- 정연경: 정현의 아들. 임규의 기이함을 알아보는 총명한 인물
- 진상문: 정연양에게 집착해 혼사를 훼방하려는 인물. 겉과 속이 다름
- 진담: 진상문의 부친. 예물의 많고 적음으로 혼사를 평가함
- 진명: 정현의 처남. 옥버루 답례를 제안함

구성

- 앞부분: 정현이 임규를 사위로 정하고 진담 부자의 청혼을 거절함
- 발단: 정 씨 집에서 임씨 집안의 차례를 받고, 예물을 돌려싼 상반된 반응이 드러남
- 전개: 정연경이 모친에게 임규의 외모를 완곡히 전하고, 부인은 임규를 직접 보고자 번민함
- 위기: 진상문이 간교한 계교로 정 씨 집에 드나들며 혼사 훼방을 꾀함
- 절정: 정현의 생일 잔치에서 임규의 추한 외모가 드러나 좌중이 대경실색하고 진상문은 분기탱천함

전체 줄거리

정현은 임자순의 아들 임규의 재능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기로 하며, 진담·진상문 부자의 청혼은 거절한다. 정 씨 집이 임씨 집안의 차례를 받자 진담은 예물이 박하다고 냉소하지만 정현은 예의 본질을 들어 반박하고, 진명의 제안대로 옥버루로 답례한다. 아들 정연경은 임규의 외모가 곱지 않음을 완곡히 전하고, 이를 들은 부인은 임규를 직접 보고자 번민한다. 정현의 생일 잔치에 임규가 나타나자 좌중은 그 추한 외모에 놀라고, 정연양에게 미련을 둔 진상문은 정현을 헐뜯는 속마음을 품는다. 서술자는 '범상한 무리가 어찌 영웅을 알겠는가'라며 임규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태를 논평한다.